투명한 중매쟁이

(고전9:15~23)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투명한 중매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실제로 내 마음의 신앙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사람을 복음으로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종이 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동질화에요, 동질화.
정치권에서 이야기 되는 이론 중에 수렴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이론이 뭐냐 하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서로 동질화됨으로써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1970년~80년대에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을 때에 국제 정치학자들이 내세운 이론이 뭐였냐 하면, 동서 양진영 사회를 서서히 동질화시킴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론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측의 경제상황을 소련 경제가 발전함을 통해서 따라오게 됨으로, 서방측의 경제상황과 소련의 경제상황이 같아질 때 이 세계의 냉전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또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거꾸로 서방측이 동구 쪽으로 접근해서 동질화 되자고 하는 수렴이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여간 방향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동질화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성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아짐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렴이론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동질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가 있는데, 이게 큰 오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동질화 되어서도 안 되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동질화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꼭 동질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모습,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표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질화가 아니면 도대체 유대인과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 본문에 의거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보자면, '투명한 중매쟁이'가 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투명한 중매쟁이.
뭐 환경과 상태를 따라서 색을 바꿔가는 그런 카멜레온처럼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투명해졌다는 거예요, 투명해졌다.
투명해진 이유가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중매쟁이는 만나게 해놓고 뒤로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바울이라고 하는 중매쟁이는,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음으로써 만남이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음으로써 만남이 가능해 지는데, 이 만남이 온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기는 있으되 자기가 투명인간이 되어야 됐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B라고 하는 사람을 A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해 주려고 할 때에, 자기가 투명한 중매쟁이가 됨으로써 A가 B를 바라보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동질화처럼 여겨지는 내용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자! 왜 사도바울은 지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왜 투명한 중매쟁이가 되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바울의 의도를 잘 살려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23절 마지막 부분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이 말 뜻은 복음이 갖고 있는 은총,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이 말씀이, 12절 하반절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의 말로써, 9장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키 구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습을 해 보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모든 사도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인연을 맺게 된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만은 재정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재정지원을 안 받으므로 사도 바울의 존재감이 경감되어 버리고,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돈이 지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이 돼버리고 사도성에 의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변명을 하면서 그 변명의 요지가 뭐였냐 하면, '내가 왜 너희들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안 받았냐 하면, 그렇게 재정지원을 받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지만 나는 정당함을 누리는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너희들이 털끝만큼이라도 나에 대한 배려나 나에 대한 신경을 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혹시 조금이라도 방해를 받을까봐, 나는 너희들에게 재정지원에 관한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하예 정해봤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 권위를 무시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사도성을 변호하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이 이 고린도교인들에게는 사도성과 연관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지려면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되면 안 되니까, 참으로 구차한 변명을 지금 사도바울로서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여간 사도바울의 의도는,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까봐.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다 한 오라기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는 건데, 복음을 전한 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신경 씀과 배려 등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도바울이 그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의도, '경제적인 후원을 안 받는다고 하는 주제 말고도 또 다른 차원에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하는 것이니까 상을 받을 기대를 내가 못한다. 주님께서 나를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인, 살인자인 나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전하는 것에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으므로 전하고 있으매, 내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만, 굳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도들은 자기에게 허락된, 주님으로부터 허락된 마땅한 권리를 사용함으로써 너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안 받으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이 점, 이 점만큼은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항목으로 채택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면서, 그렇게 자기가 중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중간에서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모든 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안 받고, 천막을 기우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실 천막을 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모든 곳에서 다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 것도 보통 일입니까?
장사를 해 보신들은 알겠지만, 만들기만 하면 그냥 다 팔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상태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또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 마땅한 것이라 받은 게 아니라,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의 선교활동을 향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재정을 지원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지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동질화처럼 보이는데 동질화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눈높이 교육' 같이 눈높이를 맞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전도자의 입장에 섬으로써 복음이 더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처음에 보면 그렇게 쉽게 여겨집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은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해 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입니다.
도대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는 것이 실천적인 면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의문의 첫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 같이 되었고, 그랬다면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한결같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이 박해한 모습을 보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례를 중시하는데 할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혈육상의 자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영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를 막 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에 유대인들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적 관습을 조금 보여주라고 권면할 때 그걸 받아들였지만 전반적으로 유대인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처럼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그처럼 반대하지 않았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 율법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상극으로 제시해 놓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동질화 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동질화 자체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동질화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문화권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 문화권의 풍습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습득함으로써 복음을 쉽게 전한다.
근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일부다처제의 관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왜 결혼 안하느냐, 아니면 너는 왜 한 여자하고만 사느냐, 너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다처제를 채택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만든다는 명목 하에서, 난 그 프로그램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초대해서 잘~ 먹게 해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대중가요들을 막 들려줍니다.
그럼으로 교회에 대한 이질감과 벽을 허물어버리고, 그래서 복음이 아주 쉽게 들어가게 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먹혀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의 동질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고린도전서 2장 첫머리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온 뒤에,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 뭐 그런 사람을 된장녀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된장녀를 만났습니다, 그 된장녀에게 지금 복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려고 할 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동질화로 이해하면, 명품으로 치장한 이 된장녀 앞에서 내가 돈이 없어서 명품으로 치

장은 못 하더라도 명품이 좋다고 하는, 명품을 부러워하고 명품을 선망하고 있는 입장이라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된장녀 앞에서 내가 취하여할 태도는, 성령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이 된장녀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됐고 이러면 안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할 말이 많아요.
가르칠 말이 많고, 지적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게 한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능력을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능력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면 나는 투명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투명인간이.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할 말 다~ 걷어버리고 투명인간이 됩니다.
어떻게 투명인간이 됩니까? 내가 그 된장녀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할 말이 많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마음에 대해서, 율법에 매여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많아요, 지적할 말도 많고 가르칠 말도 많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격과 피전도자, 이 두 사람의 인격이 만났는데, 내가 그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그 동안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림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가,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내 뒤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투명해진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이 서게 하려고 한다는 의도와 같은 맥락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동질화는 두 인격이 두 개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동질화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같아진다는 이 얘기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투명해짐으로써, 하나님이 둘이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쳐다볼 때, 내가 없어져 버려서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났는데 한 인격만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같아졌다는 얘기에요.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을 때, 내가 둘이 아니잖아요? 거울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울은 아니지만 투명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만나면서 투명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서, 찾아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므로 투명해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투명해진 나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인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사람을 만나고, 유대인인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단박에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과격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꿔라(율법이라는 건 여기서 매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만 하고, 내 마음이 매여 있어야만 되는 대상을 율법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박해하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에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응은 가지가지이지만, 사도바울이 행한 것은 피복음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복음이란 십자가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 십자가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전했다는 얘기에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십자가를 전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같아졌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짐으로써…
한 번 여러분 해 보세요!
한 사람을 만났다, 이건 누구에게나 있어요.
갓난아기가 내 자식이다, 갓난아기를 만날 때도 그 갓난아기와 같아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대로 투명한 중매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의 아들 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들의 반항이, 철없는 것이고 뭐 다 압니다,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고 할 말이 많~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투명한 중매쟁이가 되어서, 투명해진 내 뒤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춘기에 접한 내 아이만 바라볼 수 있으므로, 그 아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이

야기하는 것이지요.

투명한 중매쟁이.
사도바울 선생님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오직 그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같아짐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투명한 중매쟁이가 됨으로써 같아짐을 통해서, 내 삶의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둘이 만났는데 하나가 없어짐으로써 같아지는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투명해진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